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세영^{1*}, 노인선²

¹기독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²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The Effects of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Patient Safety Knowledge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of Chinese-Korean Caregivers

Se-Young Kim^{1*}, In-Sun No²

¹Department of Nursing,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²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로 대상자는 중국간병인 102명이었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의 평균점수는 3.25점, 환자안전지식 평균 3.10점, 환자안전활동 평균 3.39점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로, 환자안전활동 변인을 45.8%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해서 환자안전문화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와 노인요양병원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patient safety knowledge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of Chinese-Korean caregivers. A convenience sample of 102 Chinese-Korean caregivers were recruited. Factors influencing Chinese Korean caregivers' patient safety activities included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Korean speaking ability. These variables explained 45.8% of the variance in patient safety activi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to develop some program to enhance their speaking skills in order to improve Chinese Korean caregivers' patient safety activities.

Key Words Caregivers, Culture, Knowledge, Perception, Safe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격한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동으로 가족 내 돌봄 자원의 감소현상이 현저해지면서 노인 돌봄은 사회적 분담의 과제로 바뀌었다 [1]. 과거에는 노인 돌봄이 당연히 가족구성원의

*Corresponding Author : Se-Young Kim(Christian College of Nursing)

Tel: +82-62-650-8069 Email: seyeong77@ccn.ac.kr

Received July 02, 2021

Revised July 06, 2021

Accepted July 18, 2021

뭉이었지만 이제는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노인들에게 있어 노인요양관련 시설은 ‘가야만 하는 곳’이면서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으로 인식[1]되는 변화를 가져왔고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노인요양기관 이용률의 증가와[2] 함께, 노인돌봄인력의 수요와 전문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3].

중국동포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좀 더 익숙한 특수한 외국인 으로 노인돌봄영역의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4]. 내국인의 노인돌봄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간병 인력은 전체 간병 인력의 20-30%에 불과하며[5], 중국동포 간병인을 비롯한 외국인 간병 인력을 투입하여 간병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동포 간병인은 다른 외국인 집단에 비해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고,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찾는 일자리 중 노인 돌봄 영역이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4]. 더구나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취업이 좀 더 용이하다. 그러나 노인돌봄인력으로서의 중국동포의 한계를 살펴보면, 중국동포의 한국어 구사가 국내에서 용이한 적응기제로만 작용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6]. 중국동포 간병인의 언어, 정서 및 문화적 차이가 간병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하며[7], 이런 문제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로 간병인은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이 간병협회 등에서의 간단한 가입만으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동포 간병인은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낙상, 욕창,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8]. 최근 중국동포

간병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7].

노인요양병원은 다양한 간호행위가 간병 인력에게 위임되어 간병활동과 관련한 환자안전문제 발생의 여지가 높다[9]. 노인요양병원의 환자는 급성기 환자와는 다르게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이 제한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노인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은 급성기 병원 현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10]. 고령이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사고 관련요인은 통증이나 관절기능의 제한, 심장질환 등의 환자요인이 크다[11]. 따라서 노인요양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간병인이 환자와의 잦은 접촉을 유발하는 침상이동, 조기이상, 목욕 및 세발 등 간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9]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건강관리 과정에서 의료관련 불필요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 등 환자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지만[12], 간병인의 환자안전 활동 등에 관한 연구[8][11]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은 부서 내 안전문화, 병원의 안전문화 및 안전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의미한다[13]. 그리고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환자안전문화인식이며,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킨다[14]. 환자안전지식 수준은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지식정도를 의미한다[15].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는 간병인을 포함한 간호보조 인력의 교육체계 부재와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 이러한 현실은 간병 인력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

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은 의료전달 과정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상해 등 해로운 결과를 피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활동이다[17]. Jeong의 연구[18]는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간호활동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안전문화조성을 위한 병원 내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간병 인력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안전을 위한 병원 내의 활동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접촉이 필요한 간병서비스 제공과 간호사의 업무지시와 감독 하에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8] 환자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한 노인요양병원의 환자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10]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제와 환자안전법 등 의료인의 환자안전교육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일상생활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인에 대한 안전사고와 감염문제 등의 교육이 필요함에도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은 체계적이지 않고 매우 미흡한 상태[19]이다. 특히 중국동포 간병인은 한국인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사고방식의 차이 등[7]으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별도의 교육규정과 시험조차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수행이 낮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주돌봄 인력이 되고 있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중국동포 간병인에 대한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지식 그리고 환자안전활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간병인의 문제 중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환자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 제시를 통해 양질의 환자안전활동으로 노인요양병원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 간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활동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9개의 문항과 환자안전문화인식 관련 36문항, 환자안전지식 7문항, 환자안전활동 2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 결과[8][20]를 토대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말하기 능력,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 간병 형태, 간병 경력, 환자안전교육 경험 여부, 환자안전사고 경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측정을 위해 3개의 개방형 질문을 준비하였고, 정확하고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면 ‘상’, 정확하면 ‘중’, 알아듣기 불편한 경우는 ‘하’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의 측정은 설문지란에 본인의 이름과 동의내용을 스스로 읽고 쓰도록 하고, 매우 정확한 경우 ‘상’, 50% 이상 정확은 ‘중’, 거의 틀리거나 쓰지 못하면 ‘하’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2.2.1 환자안전문화인식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은 Yoon 등[21]이 개발한 도구를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이었다.

2.2.2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지식은 Probst와 Brubaker [22]가 개발한 3개 문항과 Neal 등[23]의 안전실무와 지침에 대한 지식 4개 문항을 Jeong [15]이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 [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2.3 환자안전활동

환자안전활동은 Park [18]이 개발한 안전간호활동 도구를 Jeong [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 [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이었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 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지역의 11개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동포 간병인으로 102명을 다음의 선정 기준에 의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중국동포 간병인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했으며, 선행문헌[24]을 근거로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15, 검정력=.95, 유의수준=.05를 적용하여 산출한 표본크기는 89명이 적절하여, 탈락의 가능성을 고려한 10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하고 1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11개의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나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허락을 받았다. 중국동포 간병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연구자와 2명의 보조인력이 직접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9년 9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심의번호: ***-2019-7-1)을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 연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라도 참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중국동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작성하였고

한국어 말하기능력과 읽기와 쓰기능력이 ‘하’인 대상자는 연구자가 설명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한국어 능력 측정에서 측정자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모의측정을 실시하였고, 처음 3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연구자와 보조 인력이 함께 설문에 참여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력(enter)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총 102명으로 여성 88명(86.3%), 남성 14명(13.7%)이었다. 평균연령은 60.5세로, 60대가 64명(62.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상과 중졸이 각각 38명(37.3%)이었고, 초졸 이하는 26명으로 25.4%를 차지하였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상’ 50명(49.0%)이었고 ‘중’ 40명(39.2%), ‘하’ 12명(11.8%)로 나타났고,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은 ‘상’ 40명(39.2%)이었고 ‘중’ 42명(41.2%), ‘하’ 20명(19.6%)이었다. 간병 형태는 1명의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형

태인 공동간병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간병경력은 57.6개월로 12개월 미만인 10명인 9.8%였고 13개월~36개월 22명(21.6%), 37개월~60개월 경력은 40명(39.2%)이었으며, 61개월 이상의 경력도 30명인 29.4%였다. 안전교육 경험에서 대상자의 78.4%인 80명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22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경험의 경우 20명(19.6%)이 사고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2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환자안전문화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5점±0.55이었고 2.28점에서 4.78점의 범위이었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지식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0점으로 최소 1.71점에서 최대 5점까지 나타났다. 환자안전활동의 범위는 2.10에서 5점까지 측정되었으며 평균점수는 3.3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gree of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표 1]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 정도

Variables	M±SD	Range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3.25±0.55	2.28~4.78
Patient safety knowledge	3.10±0.63	1.71~5.00
Patient safety activities	3.39±0.74	2.10~5.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는 [Table 2]과 같다.

학력(F=12.10, $p<.001$), 말하기능력(F=22.08, $p<.001$), 읽기와 쓰기능력(F=7.10, $p=.001$), 간병

형태($t=-2.55, p=.012$), 간병경력($F=11.20, p<.001$), 환자안전사고 경험유무($t=2.19, p=.031$)에 따라 환자안전활동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학력의 경우는 초졸 이하가 중졸보다($p=.05$), 중졸보다 고졸 이상($p<.001$)이 환자안전활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말하기능력과 읽기와 쓰기능력은 ‘상’이, 간병경력은 61개월 이상이 환자안전활동의 정도가 높았다. 간병형태에서는 개인간병이 공동간병의 경우보다 환자안전활동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Activities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

Variables	Categories	n(%)	Patient safety activities	
			M±SD	T/F (p)
Gender	Male	14 (13.7)	3.51±0.85	0.64 (.523)
	Female	88 (86.3)	3.37±0.72	
Age (Year)	41-49 ^a	4 (3.9)	3.06±1.07	0.91 (.407)
	50-59 ^b	34 (33.3)	3.30±0.91	
	60-69 ^c	64 (62.8)	3.46±0.59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a	26 (25.4)	3.77±0.61	12.10 (<.001) b<a,c
	Middle school ^b	38 (37.3)	3.00±0.49	
	≤High school ^c	38 (37.3)	3.75±0.80	
Korean speaking ability	High ^a	50 (49.0)	3.71±0.63	22.08 (<.001) c<b<a
	Middle ^b	40 (39.2)	3.25±0.54	
	Low ^c	12 (11.8)	2.46±0.67	
Korean reading & writing ability	High ^a	40 (39.2)	3.63±0.63	7.10 (.001) c<a,b
	Middle ^b	42 (41.2)	3.44±0.71	
	Low ^c	20 (19.6)	2.77±0.64	
Type of caring	Mutual care	94 (92.2)	3.34±0.71	-2.55 (.012)
	Personal care	8 (7.8)	4.00±0.74	
Work experiences (month)	≥12 ^a	10 (9.8)	2.42±0.58	11.20 (<.001) a<b<c<d
	13-36 ^b	22 (21.6)	3.40±0.55	
	37-60 ^c	40 (39.2)	3.52±0.67	
	≤61 ^d	30 (29.4)	3.54±0.77	
Experiences in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80 (78.4)	3.44±0.71	1.33(.188)
	No	22 (21.6)	3.20±0.81	
Experiences of patient safety incidents	Yes	20 (19.6)	3.71±0.61	2.19 (.031)
	No	82 (80.4)	3.31±0.74	

3.4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과의 상관관계

환자안전문화인식은 환자안전지식과 상관관계($r=.765, p<.001$)를 나타내었고 환자안전활동은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18, p<.001$), 환자안전지식도 환자안전활동과 상관관계($r=.51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지식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Humanistic Knowledge, Empathy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e

[표 3]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의 상관관계

Variables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knowledge	Patient safety activities
	r (p)	r (p)	r (p)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1.00		
Patient safety knowledge	.765 (<.001)	1.00	
Patient safety activities	.518 (<.001)	.519 (<.001)	1.00

3.5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변수인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일반적 특성 중 환자안전활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력, 한국어 말하기 능력,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 간병형태, 간병경력, 사고경험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입력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일반적 특성 변수 중 학력, 한국어 말하기 능력,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 간병형태, 간병경력, 사고경험에 대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표준화 잔차의 도표를 통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415 이어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은 0.148-0.77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

팽창요인은 1.297-6.766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였다.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자안전문화인식($\beta = 0.23, p = 0.037$), 환자안전문화지식($\beta = 0.31, p = 0.013$), 학력($\beta = -0.32, p < .001$), 말하기능력($\beta = -0.35, p = 0.008$)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학력, 말하기능력이 58.1%로 설명되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표 4] 환자안전활동의 영향 요인

Variables	B	B	t	p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0.31	0.23	2.12	.037
Patient safety knowledge	0.37	0.31	2.54	.01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0.48	-0.32	-3.77	<.001
Korean speaking ability (middle)	-0.52	-0.35	-2.72	.008

R=0.80, R²=0.64, Adjusted R²=0.581, F=11.78, p<.001

*reference group. education level:≤high school, Korean speaking ability:high

4. 논의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60대가 52.0%인 64명, 50대가 33.3% 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0.5세로 고령인 간병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국동포 간병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연구[9]의 연령대와 거의 비슷한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인 간병인 대상의 연구[25]에서 평균연령이 56.5세인 결과보다 다소 높은 연령군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동포 간병인의 나이를 고려한 간병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 ‘하’ 11.8%, 읽기와 쓰기 능력 ‘하’가 19.6%로 나타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병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상자의 대부분인 92%의 대상자가 공동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간병인 1명당 6-15명의 환자를 돌보는 간병 인력의 의사소통 문제는 돌봄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25점, 환자안전지식 정도는 평균 3.10점이었고 환자안전활동의 평균점수는 3.39점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인과의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점수는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3.90점[26]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환자안전활동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환자안전활동 점수인 4.10점[27]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간병인의 환자안전지식은 찾아볼 수 없어 비교를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인 중국동포 간병인의 낮은 평균점수는, 인력수급에만 급급하여 간병인력 확장을 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때문에 자격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그들을 유입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4시간 환자와 함께 하는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활동의 부족은 환자안전과 생명이 직결될 수 있으므로 향상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 말하기 능력, 읽기와 쓰기 능력, 간병형태, 간병경력, 사고경험은 환자안전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Kang 등[27]은 간호보조인력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환자안전활동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고, Park 등[28]은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 경력이 오래될수록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안전사고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는 환자안전사고 경험 없는 경우 환자안전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8]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영향요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문화지식, 학력, 한국어 말하기능력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활동을 잘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 실천적 욕구인 인식이 환자안전활동을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제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임을 시사하고 있다.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이 증가한 Jeong [8]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2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문화에 대한 지각 향상과 환자안전문화인식 강화 노력이 필요한데, 안전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안전간호지각은 높아진다[29]. 따라서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환자안전문화인식역량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30]와 유의한 결과였지만, 간병인의 지식정도가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Kang 등[27]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환자안전인식과 환자안전지식이 모두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이 있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은 지식 전달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활동과 경험을 포함한 교육으로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한 환자안전문화지식 정도를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대상자의 학력이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자안전활동은 중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동포 간병인의 한국어 말하기능력은, ‘중’ 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상’ 수준의 대상자가 환자안전활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이 있었다. 현재 중국동포간병인은 국내 간병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주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인력에 대한 별다른 규제와 기준이 없이도 간병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4]. 본 연구 과정에서 만난 중국동포간병인들은 학력이나 한국어 말하기 능력

정도와 무관하게 환자간병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중국동포간병인의 학력과 한국어 말하기능력 수준이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력과 한국어 말하기능력 수준이 낮은 중국동포간병인의 활동이 환자 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간병인 자격증도 구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중국동포의 일자리의 진입장벽이 낮은 영역이다[4]. 이런 구조는 앞으로 이주인력이 간병인력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큰 구조임을 의미하므로[4] 환자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능력, 학력 등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ong [20]의 연구에서도 중국동포 간병인의 돌봄 서비스가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긴밀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을 언급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및 자격기준의 부재는 환자안전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인 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간병인 유입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동포 간병인의 말하기 능력을 포함한 법적 기준은 안전한 돌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격조건 수립과 중국동포 간병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향상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함께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으로서 간병 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간호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지식, 인식,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이 대부분인 요양병원에서 대상자와 간병인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소통의 문제 또한 환자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및 전략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자안전활동 수행능력 향

상과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므로 특정 외국인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중국동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중국동포 간병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 제시와 노인요양병원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의 정도는 한국인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간호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문화지식, 학력, 한국어 말하기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력과 말하기능력의 기준을 제도화하여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국동포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지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의사소통 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G시 및 전라남북도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중국동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도시 및 요양원에 근무하는 중국동포 간병인과 외국인 간병인의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Y. Kim, 'Elderly Koreans' perception of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e*. Vol.27, No.3 pp.242-253, 2016.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current status of use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by region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20 [cited 2020 June 20].
- [3] S-A. Lim,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profession development of care worker'. *The Journal of Korea Long Term Care*. Vol.7, No.1, pp.34-53. 2019.
- [4] Y-H. Kim, 'A study on elderly care labor market and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 focused on regulatory polic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45, No.1, pp.180-206, 2018.
- [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ctivate plan of private employment service [Internet]. Sejo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3 [cited 2020 July 22].
- [6] S-K. Yeo, 'A conflict and adaptation of Chosunjok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Vol.48, No.0, pp243-277, 2005.
- [7] S-Y. Hong and G-J. Kim, 'A study of the acculturation meaning among Chinese-Chosun residential care attendants in long-term care settings'.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0, No.4, pp.1263-1280, 2010.
- [8] E-Y. Chung,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activities of care-helpers working in long term care hospital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9.
- [9] N-K. Hong and K-J.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 a long term care hospital caregiv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 pp.187-198, 2019.
- [1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Quality care strategy for long-term care hospitals and nursing homes - focusing on patient (Resident) safety [Internet]. Sejong: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cited 2020 July 30].
- [11] N-Y. Seok and M-Y. Jeon, 'Factors related to patient safety accident in long-term care hospitals: focused on patient, nurse, and hospital facto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22, No.2, pp.126-139, 2020.
-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Law of Patient Safety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cited 2020 November 20].
- [13] S-J. Kim, H-J. Lee and E-G. Oh, 'Perceived level and associated factors of patient safety culture among health care providers in an operating room'.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Vol.16, No.2, pp.57-67, 2010.
- [14] J-f Xie, S-Q Ding, Z-Q Zging, S-N Zeng, C-X Qin, Q-F Yi, L-N Gong. 'A safety culture training program enhanced the perceptions of patient safety culture of nurse manager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27, pp.128-133, 2017.
- [15] S-K. Chung, 'A structural model of safety climate and safety compliance of hospital organization employee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10.
- [16] S-E. Park and E-Y. Yeom, 'Experience of the role conflict of nurses in long-term car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7, pp.368-381, 2016.
- [17]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AHRQ Publication. 2004. No. 04-0041.
- [18] S-J. Park, 'A study on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08.
- [19] S-S. Kim, 'Work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health care workers in South Korea'. *The Korea-Japanese Journal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Vol.69, No.0, pp.97-123, 2015.
- [20] I-S. So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the care service of the caregivers in a nursing hospital for the elderly in the intent of reuse: focusing on Chinese-Korean caregiv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5, pp.456-467, 2019.
- [21] S-H. Yoon, B-S. Kim and S-Y.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patient safety culture scale for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Vol.43, No.3, pp.379-388, 2013.
- [22] T-M. Probst and T-L. Brubaker, 'The effects of job insecurity on employee safety outcome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plora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6, No.2, pp.139-159, 2001.
- [23] A. Neal, M-A. Griffin and P-M. Hart,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limate on safety climate and individual behavior'. *Safety Science*. Vol.34, No.1-3, pp.99-109, 2000.
- [24] H-M. Jang, J-Y. Park, Y-J. Choi, S-W. Park and H-N. Lim, 'Effect of general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burnout o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3, pp.239-250, 2015.
- [25] Y-S. Ko and B-H. Park, 'Awareness and performance level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mong caregivers at medium and small hospitals'. *Korean Journa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Vol.21, No.2, pp.74-84, 2016.
- [26] S-H. Yoon. S-Y. Kim and X. Wu. 'Perception of workers on patient safety culture and degree of patient safety in nursing hom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3, pp.247-256, 2014.
- [27] H-K. Kang and E-S. Lee,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and patient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long-term care hospitals' nursing assista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 Society*. Vol.19, No.10, pp.194-205, 2018.
- [28] J-D. Park, H-J. Jeong, 'A study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0, pp.307-315, 2020.
- [29] K-H. Lee, Y-S. Lee, H-K. Park, J-O. Rhu and I-S. Byun, 'The influences of the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7, No.2, pp.204-214, 2011.
- [30] K-S. Jang, Factors influencing th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4, pp.358-366, 2018.